

< 별첨 >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

# 모 두 발 언

2020. 5. 28. (목) 10:00

금 융 위 원 회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I.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구조조정 시장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김상규 부장판사님과  
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님께서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II.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수요 증가와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중요성

---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Liquidity Risk)와  
경영정상화가 좌우되는 지급능력 위기(Solvency Risk)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지급불능 위기로 급속히 전개되어  
정상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당분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대출금의 미래 상환가능성 불투명,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 등으로  
채권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성을 견인하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의 계열사 등 보유자산 매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산매각이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이는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위기해결 기능 중 핵심인 만큼,

다양한 투자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구조조정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산매각 시장에서 선도적인 윤회유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해왔던 자산운용사 외에도 M&A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자산운용사들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III. 기업구조혁신펀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그간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란 새로운 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18.11월 조성된 이래, '20.4월말 기준 16개 기업에 약 7천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철강업,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등 전통 제조업 12개 기업에 투자하여 재무·사업구조개선 등 기업정상화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장기간 워크아웃이 지속되던 동부제철에 대해 KG그룹과 공동투자하여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간 수차례 매각에 실패하였던 성동조선에 대해 HSG중공업과 함께 투자하여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공적 지원 또는 법적 지원 영역에서  
민간 투자영역의 하나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한 단계 도약하는 차원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향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금년 중 펀드 운용규모를  
1조원 추가 확대(1.6조원→2.6조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재정 750억원을 바탕으로,  
산은, 수은, 캠프,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5천억의 모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펀드 조성에 협조해 주신 기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확대로  
제2기에 들어서면서  
운용방식의 질적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프로젝트펀드 비중을 높여(현재 26% → 40%)  
기업에 자금이 신속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대상도 중견·중소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투자업종도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다양한 혁신산업 등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에서 주목할 점은  
'부채투자 전용펀드'(PDF : private debt fund)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자금수요(단기·소액자금 등)가 충족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 시점도 빨라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분야에 접근하는 문턱을 낮춰  
다양한 추가적인 투자 사례도  
창출해 낼 것으로 믿습니다.

## **IV. 구조조정 제도 개선 · 인프라 조성 노력**

---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기업구조조정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법원, 채권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절차를 주도하는 주체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업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구조조정 절차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정보의 적시 제공,  
구조조정 절차와 시장참여 간 연계 강화\* 등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회생기업의 인가 전 M&A 활성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등

아울러,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경영정상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법원·법무부와  
금융위 간에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원활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V. 맺음말

---

정부는  
기업, 투자자,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한국형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멀리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그간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 위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Boom-up 시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자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들에게 익숙했던  
생각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정책과 시장형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